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시굴조사 성과 공개... 군산 지역 마한소국 융성 확인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되어 군산 지역 마한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군산 미룡동 고분군 전경

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문화성립의 한 축을 담당한 마한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발굴조사는 군산대학교박물관이 담당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장의례와 관련된 화재유구 및 지배자 위세품 등의 발굴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한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발굴조사를 진행한 군산대학교박물관 조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5년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 및 시굴 비용을 확보하여 2025년 봄 조사를 다시 시작하며, 2026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 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성료

익산시, 10팀 62명 참여 발표회 개최

익산시민들이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주가의 꿈을 펼쳤다.

시는 지난 19일 저녁 모현시립도서관에서 발표회를 개최하며 하반기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친구, 가족, 지인 등과 5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감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다.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됐던 악기 강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발표회를 통해 악기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시민들의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 8월부터 18주간의 강습을 마친 10팀, 62명이 참여했다. 수강생들은 행사에 참석한 지인, 가족 등에게 갖고 닦은 연주실력을 뽐내며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다.

또한 발표회 현장에서는 공연에 이어 수강생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돼 서로 격려와 축하를 건네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지역사회를 빛내는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서예문화 진흥 위한 교육 결과물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6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 2층에서 '제2회 한지에 서예를 담다' 교육 결과 전시회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전당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30주에 걸쳐 진행된 서예 교육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교육생들이 각기 다른 개성의 서체로 써 내려간 서예작품 33점과 찬

조작품 4점 등 모두 37점을 선보인다.

앞서 전당은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교육을 개설했다. 강사로는 이당 김진호, 청담 최동명 선생을 초청해 전문적인 서예 기술과 기법을 전수했다.

한편 행사는 작년 전주시의회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제정된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모두 6개 반 60



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전당은 지난 19일 교육 결과물 전시 오픈식에 앞서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

전통·현대 조화 이룬 판소리극 열린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27~28일 '종이꽃발:두할망본풀이' 공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에서 오는 27~28일 판소리극 '종이꽃발:두할망본풀이' 공연을 개최한다. '종이꽃발:두할망본풀이'는 제주 무속 신화 '생불함망본풀이'를 기반으로 한 판소리 드라마로 아이를 접지해 준다는 삼신할미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을 만들었다.

종이 꽃발이라는 제목과 같이 다채롭고 예쁜 지화로 꾸민 무대도 큰 볼거리 중 하나이며, 아이를 접지해 주는 생불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탄생, 여성의 모성,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담아낼 것이다.

판소리의 기본 속성인 이야기성을 기본 양식으로, 1인 소리꾼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객이 이야기를 상상하게끔 던져준다. 작품에 등장하는 10여 곡의 소리 대목은 판소리를 기반으로 배우 1인과 코러스 2인, 베이스·피아노·기타·장구 연주자 4인의 다채로운 멜로디로 어우러진다. 전통 성악 어법의 다양한 악조와 장단을 차용해 만들어진 소리에 재즈의 특성을 살려 편곡했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공연예술 융통 지원 사업' 2개 공연 중 마지막 공연으로 27일(오후 7시 30분), 28일(오후 2시)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판소리극 '종이꽃발:두할망본풀이' 공연정보와



티켓 예매는 나루컬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석 1만원 완주군민은 7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판소리의 다채로움과 동해안 별신굿 종이꽃의 아름다움을 연달연시 가족들과 함께 만끽하기 바란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 글로컬 콘텐츠 창작 캠프 개최

고교생 개인 맞춤형 학과 체험·실습으로 진로 탐색 도와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은 지난 18~19일 양일간 글로벌 콘텐츠 창작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주대가 고교생 개인 맞춤형 학과 체험과 실습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인문콘텐츠대학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창작'이라는 주제로 고교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한국어문학과 유인혁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인문학과 콘텐츠의 개념을 이해한 후,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이어졌다.

체험에서는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영미국), 중국 전통의상 체험 및 펜시우드 꾸미기(중국), 나전칠기 카팅 만들기(한국), 오마토리 만들기(일본)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이어 첨단 실습 제작스튜디오에서 전문가용 태블릿을 활용한 이모티콘 및 굿즈만들기(웹툰콘텐츠학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화(時畵)만들기, 훈민정음 낱글이름을 통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축된 돌비



에트모스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음향 체험과 영상 콘텐츠 촬영·제작 실습을 진행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문학 가치와 콘텐츠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문콘텐츠대학 김건우 학장은 "찰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12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글로벌 콘텐츠 창작캠프에 참여했다"며 "이번 창작 캠프를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이 인문콘텐츠의 상상력과 재미를 느끼고, 향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단과대학으로 통합 선별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